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향



韓 鉉 珪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1] 건설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 낙후된 국내관행 → Global Standard로 이행
- ◇ 정부의 보호 → 서민기능에 의한 경쟁의 틀 확립

1) 입찰제도의 개선방향

(1) 2001년부터 Global Standard인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 도입

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에게 투찰기회를 부여한 후 최저가 낙찰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첨부

② (2001년) 1,000억원 이상 → (02년) 500억원 이상 → (03년) 모든 공사

③ 과도기적으로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기회를 확보하도록 개선

• 예 : 현재 10년간 공사실적이 해당공사의 200%면 만점 → 500%

• 단, 이 경우 상위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체별로 공공 공사의 수주 상한선을 설정

(2)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업계·시장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정부 : 최대 발주자인 정부는 원칙에 충실하여 가장 싼값에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더 이상 정부가 건설공사 물량을 건설업체에 배분하는 기능은 포기

② 업계 : 오직 싼 가격과 좋은 품질로 승부한다는 자세

③ 시장 :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 없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치열한 경쟁을 유발(냉엄하게 퇴출)

2. 건설금융 기능의 강화

보증 및 신용평가 등 건설관련 금융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공제조합에 금융기능을 의존해 왔으나 업체선별 및 위험관리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공제조합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만일 공제조합이 없다면 현재 건설업체의 2/3이상은 생존 불가능)하다.

1) 공제조합의 보증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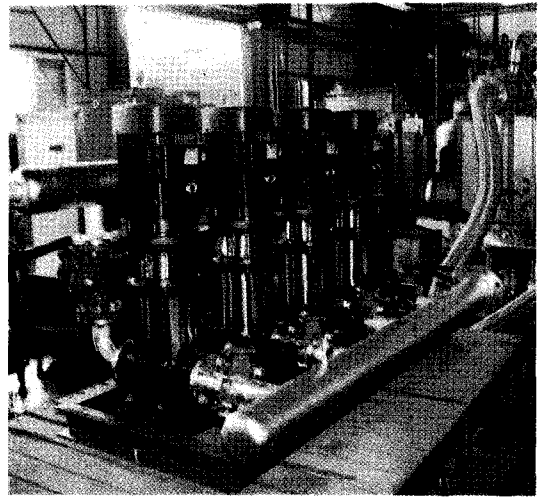
(1) 공제조합의 지배구조를 변화(가입임의화 또는 주식회사로 독립)시켜 주주들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

(2)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2000.7)를 계기로 보험회사·시중은행 등의 보증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시급

(3) 업체평가의 신뢰성과 보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제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신용평가기관 설립방안을 강구

2) 일반금융기관의 건설금융 기능 강화

건설업체의 증시·KOSDAQ시장 진출에로 요인을 해소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



3. 건설산업의 지식기반화

1) IMF위기를 극복한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선진화 하여야 한다.

(1) 건설업이 시공위주에서 탈피하여 기획·설계·건설관리(CM)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체계를 개편

※건설업체가 설계·사업관리(CM)·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역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2)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등 시공규제도 폐지

2)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창출이 가능토록 건설업체·기계·주요자재 관련정보의 D/B화를 금년중 완료 (50억원 투입)

4. 잔존관행의 척결

1) 부정공동도급·불법하도급·부정부패·등록대여 등 각종 비리현상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척결한다.

2)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 협회의 기능과 구성에도 근본적인 변화 필요